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김 동 선
편집인 성 황 용
주 간 안 영 호
편집장 오 영 택
외 대 신 문 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우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 다 25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

제 3 1 4 호
<주간>
1981년 4월 2일
매주 목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천원)
통권 1969년 7월1일
창간 1955년 4월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전일제 수업 다원적 운영

전일제 수업을 위한 사전 대책 미흡

1부·용인대:종전과 같아 2부대:전공과목만 야간에

○…81학년 제 1 학기부터 시작된 전일제수업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전일제 수업에대한 문 ○…
○…교부의 지침은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한 모든 과목의 전일제 수업실시를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실 ○…
○…시하되 수업시간을 앞당기거나 연장하여 시설활용을 극대화하고 강의의 복수개설등을 통하여 학 ○…
○…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전일제 수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2부대학이 없 ○…
○…는 타교의 경우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본교는 불가피한 야간강좌의 ○…
○…개설로 인해 전일제 수업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교부계에 따르면 현재 본교의 전일제수업현황은 오전 9시에 시작되어 오후 5시에 끝나는 주간 수업과 오후 6시에서 10시 5분까지 계속되는 야간강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2·3·4학년 주간부 학생들은 종전과과 같이 8교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주간 신입생의 경우는 야간강좌생(산업체근로자포 81학년도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과 야간강좌를 수강해야하는 학생(야간강좌 개설학과 신입생중 성적순위로 배정된다 과26명의 비직장인 일반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간 8교시 수업을 받고있다.

한편 2부 2·3학년 재학생은 부전공교양 제 2 외국어에 한해 주간에 수강할수 있으나 전공필수 과목은 주간수강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신입생중 직장에 근무하지 않으나 야간강좌를 수강해야하는 일반학생 각과 26명은 우선 금년도 학생수 증가에 대비해서 학교당국은 630석의 강의실 확장, 38명의교수충원, 기타 학생복지시설을 확장했는데 이는 금년도에 학생수가 1.800명 증가했을 뿐아니라 전일제 수업에 따라 2부학생들이 주간에 수강하게 된 것을 고려하면 너무 소극적 대책이라는 인상을 피할수 없다.

또한 2부학생들의 주간수강이 현재에는 부전공 교양제 2외국어로 제한되어있으나 장차 2부대학의 폐지를 예상하면 비직장인 일반학생들은 전공과목까지도 주간에 수강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것이다. 그리고 계산학습실이나등 직장인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을 한반하여 강의를 진행하는데는 강의진도및 내용에 있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하는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의 해결책이어느 한학을 희생하거나 혹은 이중간한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과감한 분반수업을 실시 양학모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비좁은 강의실사정아래서 1·2부가 동시에 강의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1·2부생의 마찰이다. 자칫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이 문제는 전일제 수업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이 학생들의 상호이해와 학교당국의 조속한 해결책마련으로 해결되어야 한결필요이다. 그리고 학내의 현실이 불가피하게 전일제수업의 실시를 불러왔다고 하여 학생의 편의를 외면한채 학교측의 사정만을 고려해서는안되며 학교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 진리탑구를 위한 진정한 대학교육의 실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양미영 기자>

<대단위강의실 수업광경>

제12회 독어원어연극

엘티이크작「장화신은 고양이」

제12회 독일어 원어연극이 4월 3일 (금) 4일 (토) 이틀 동안 오후 ~~4시와 7시~~ 모두 비차례에 걸쳐 본교 대강당에서 상연된다.

이번 작품은 본교의 독일어과 및 독일어교육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외대독어연구반」에서 작세하여 이성기(GG—3)상 진(GE—4)군이 공동기획하였고 연출에는 송준섭(KE—3)군이 담당했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게 된 작품은 독일낭만주의작가 엘티이크 원작의 「장화신은 고양이」로 국내에서는 초연되는 것으로 이번 공연을 위한 연극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연습을 해왔다.

한편 이번 공연은 비용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끝에 상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교당국의 지원과 외대생의 많은 호응을 바란다고 한다.

대학원 장학금 지급

총수혜자 156명에 1,500만원

작 대학원에서는 81학년도 1학기 신입생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대학원에서는 신입생의 학과별 최우수 합격자 12명(E과 을 준외11명) 과 재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나 학비 조달이 곤란한자 54명(영외과 박태진외53명) 에게 각 16만원씩 지급한다.

총 장학생은 66명으로 전학생의 19.5%에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동시통역 대학원

동시통역 대학원에서는 신입생의 각 어학별 입학성적 우수자 3기생 20명과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1기생 12명, 2기생 18명 등 총 50명에게 삼학 협동 재단 복별장학금 각 30만원씩을 지급한다.

▲교육 대학원

첫 신입생을 모집한 교육대학원에서는 입학성적 최우수자 1명 (E전공) 에게312,000원, 현직교사 (초·중·고)에게 등록금의 10%인 55,000원을 38명에게 지급했다.

또한 외대 교직원으로서 입학한 1명에게 등록금의 50%인 275,000원을 지급했다.

(외부역 대학원은 미정임)

동문 첫 국회 진출

강기필(E·2회)김현욱(G·4회) 김종인(G·5회)

지난 3월2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본교동문 3명과 전직교수 1명이 당선되었다.

이번 국회의원 진출은 동문으로서 개교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지역구로는 김현욱동문이 서산·당진지구에서 출마하여 69,967표를 얻어 압도적 다수로 당선되었다.

또한 전국구로는 김종인동문, 강기필동문과 전라여기과과장 박원재교수가 당선되었다.

이번에 영광을 차지한 동문들의 명단은 아래와같다.

김현욱동문 (서산당진지구·민정) G—4회졸

김종인동문 (전국구·민정) G—5회졸

강기필동문 (전국구·국민) E—2회졸

박원재교수 (전국구·민정) 전 Tu과 과장

도서대출증 추가발급

본교 도서관에서는 2중 열람자에서 4월13일부터 4월16일까지 4일동안 도서대출증 분실자및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대출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추가 발급은 마감일 이후로는 불가능하며 뒤기증인에 분실일 경우 재발급이 되지않고 다음학기에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한번 발급받은 대출증은 습인시키지 연장사용이 가능하나 매학기 초에 도서관에서 등록확인을 받아야 유효하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분출연 4층 5·6열람실은 오후 5시이후에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5시30분경에 입출 것이며 열람석이 2층과 3층이 부족할 때에는 인체든지 다시 열 것이다 한다.

80학년도 추가시험

교무계에서는 4월4일 오전 9시 본관116호에서 1980학년도 추가시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시험의 대상자는 모두 9명이고 재학 학생은 학생증을 지참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입생 환영회 성료

학도호국단 주최 81학년도 신입생환영회가 4월2일 「신입생 환영의 밤」을 끝으로 성료된다.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환영회에서는 씨인제 녹화방영, 연극관람및연회등 계획된 바로 이루어졌다.

교육학 특강

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는 4월6일 오후 6시20분과 7시 50분에 사회 과학관 205강의실에서 실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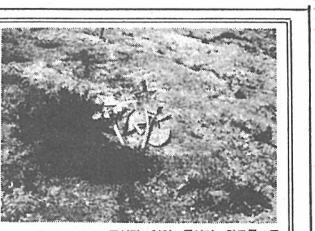
이번 교육학 특강에 초청되는 연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정원식 박사로 교육학 전반에 걸친 강의를하는데 교육대학원장은 필히 참석해야 한다고 한다.

정원수 반출

학도호국단 주최 본교의 은실푸연못 미네르바 동산 측구장의 도서전경의 일부 수목이 용인 대학교로 이전됐다.

이번 수목이전은 좋은 운동장 확대와 용인대학의 조경을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또한 도서관옆 수목이 이전된 곳에는 장차 주차장시설및 건물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서관 옆의 동산이 황토를 드러낸 날, 부러진 삽자루의 얼룩이 과거를 상켜버린 자신의 행동을 수줍어한다.

과거는 언제나 추억으로만 남는 것 추억은 또 스스로 아름다움을 더해가기 마련.

어문촛점

체육 수업 혼란 예상

운동장 1인당 0.6평 체육교수 7명

4월부터 본격적인 실외체육수업이 시작될 예정인데 교수의 부족과 운동장의 협소로 인해 정상적인 체육수업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체육수강대상자는 신입생 약3,100명, 2학년 여학생 약200명등 약3,300명인데 이들의 체육수업은 원칙의 1 2교시 223명, 화요일 1, 2교시 177명, 3, 4교시 293명 수요일 1, 2교시 240명, 목요일 1, 2교시 270명 3, 4교시 320명, 금요일 1, 2교시 312명, 3, 4교시 310명 토요일 1, 2교시 455명, 3, 4교시 453명으로 하루 평균 1, 2교시에 280명, 3, 4교시에 344명이 수업을 받을예정이다.

학교 전체 면적 21,284평중 운동장의 면적은 테니스코트 1,337평과 운동장 2,758평을 포함하여 합계 4,095평인데 이는 동일시간에 수업을 받는 학생을 300명으로 기준할때 1인당 약13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육수업도중의 접촉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체육교수의 현황을보면 금년에 중원된 1명을포함 전임 5명, 강사2명 합계 7명에 불과해 교수 1인당 약500여명의 학생을 담당지도해야 한다.

체육기재의 면에서는 학생들의 소요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교육 위반과 체육실의 협소동의 이유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 테니스 코트 자리에 장차실이 들어설 경우에는 체육수업에 더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어대학 체육대회

올해 처음으로 개최 되는 동양어 대학의 「학장배 신입생 체육대회」가 오늘 2일부터 10일까지 본교 운동장에서 열리게 된다.

신입생들의 상호 친목과단합을 위해서 이루어진 이대회에서는 배구와 축구의 2종목이 채택되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여학생 2명이 배구에 참여해야 하는 규정이었다.

제적 예정자 발표

1학기 총 170명

교무계에서는 금학년도 1학기 제적예정자를 확정, 지난30일 발표했다. 미등록자와 휴학기간 초과등으로 제적예정자로 발표된 자는 총170명에 달하는데 제적예정자 학과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동·서양어대학 E (14) F (6) G (1) R (4) S (22) I (4) P (2) N (4) SW (1) C (7) J (5) M (4) A (11) Th (2) V (4) H (2) Tu (4) Ir (5) ▲법정·상경대학 D (4) PA (2) L (6) T (10) Ec (9) Ic (3) ▲사범대학 EE (1) FE (2) GE (2) KE (2) ▲2부대학 E (1) F (2) G (1) R (1) S (1) J (1) A (3) T (2) BA (6) ▲용인대학 E (4) F (2) G (1) R (1)

예방접종 실시

학생회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한다.

전교생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4월6일부터 11일까지 장티보스 4월27일부터 5월2일까지 홍역주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며 학생들은 학생증을 준비해야한다.

교수 등정

본교는 지난 3월1일 복직교수를 승진 발령하였다.

이번에 승진된 교수는 다음과 같다.

▲다광요 (G) 부교수→교수

이성훈(I)조교수→부교수

민발균(Es)조교수→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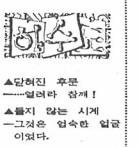
John. H. Ide(E) 전임강사→조교수

이승덕(P)전임강사→조교수

▲김영석 송정희교수 박사학위취득

교육실습생 소집

사범대학, 동양어대학, 서양어대학 4학년 학생중 교육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의 예비소집이 4월 4일 (토) 오전10시에 있다. 이번 교육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본관 116호실에 모여서 교육실습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교무과로부터 지시받아야한다고 한다.



▲달려진 후문
——얼려라 잠깨!
▲틀림 없는 시계
—그것은 엄속한 일금이었다.

제29기 수습기자 모집

금년 4월11일로 창간27주년을 맞는 본「외대학보」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대학 언론에 뜻을 둔 유능하고 참신한 수습기자를 모집한다.

법률하는 외대의 아카데믹한 분위기를 진취적기기 위해서 예지와 감성을 겸비한 일군을 기다린다.

모집부문·인원=일반·사진·칫기자 약간명

자 격=1학년 남·여재학생

제출서류=본사 소정 응시원서

마 감=4월11일 (토)

시험일시=4월15일 (수) 오후 5시

시험과목=국어 (한문포함) 상식·계사작성·논문 (사진·칫기자는 실기및 면접)

시험장소=본관 326호

뜻기타 자세한 것은 본사로 문의 바람.

외 대 신 문 사

신문없는 정부와 정부없는 신문

오는 4월 7일은 신문의 날이다 이날은 1957년 전국의 신문통신편집국장들이 모여 민의에 의한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일을 「신문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신문 통신의 새로운 파표를 정립하자고 결의한데서 유래한다.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진정한 언론의 기능을 정립코자 했던 당시의 결의가 지금까지 성실히 수행되어왔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4월 7일은 의미있는 날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언론의 역사는 시작부 더불어 현재까지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영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이는 물론 언론의 힘으로 작용 혹은 반작용하는 민의의 방향에 따른 불안감을 통제하기위한 외부적 간섭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조상들은 존중하는 것을 지배 집단의 불문율로 상정하여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리는 자유는 가장 신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언론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와 실행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만 언론자유에 뒤따르는 언론의 책임과 의무가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으며 결집없이 통제가 가해지는 경우에도 언론의 책임과 의무 역시 극한적으로 위배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통제가 당위성과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역사상의 많은 전제정부나 비민주적정부는 다수의의견에 창졸되는 여론을 무시한 가운데 결국에는 여론의 힘에 의해 붕괴되었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24조 신문의날을 맞이해서 영욕의 발자취인 우리의 언론사를 되새겨 보며 『역학 나에게 「신문없는 정부」와 「정부없는 신문」의 양자택일을 하라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정부를 택하겠다고 말한다면 (前)

한편 현대의 정치 사회경제등 모든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광역화 되는 것과 더불어 언론자유의 영역이 확대되고 불가피하게 확대될 것이라 생각하여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확보되어야 하며 이 밑에 수많은 보마소 제조원의 반생이 있기를 새겨들을 마음으로 기원한다. <대>

4월호

時事英語研究

創刊 22週年紀念号

特輯

The Devil in History
(소련의 이데올로기 : 根源的으로 腐敗한 絶対理念) ····· by George Urban
Soviet Global Power and the Correlation of Forces
(이데올로기와 세계전략 : 帝国化 野慾에 投影된 蘇이데올로기) ····· by Uri Ra'anan
Toughening Attitudes on World Trade
(국제무역의 앙상 : 高潮되는 近隣窮乏化政策) ····· by Clyde H. Farnsworth
Oil Prospects Remain Unstable
(자원경제의 전망 : 時急한 대체에너지 開発) ····· by Youssef M. Ibrahim

영어로 읽는 韓国文学 : 「뫼비우스의 띠」 ····· 趙世熙 作 · 薛順鳳 譯

■ NYT Seasonal Editorial ■ 英文字野史 / 英語街 散策 ■ 취직英作文 강좌
■ 英語会話(Welcome to English) ■ TOEFL Test / 나의 留学記 ■ 個談 · 格言 풀이 / 貿易英語講座

映画会話 과이江의 다리

값 1,800원

英語世界

Diamond: They are not only girl's best friend (4월의 탄생석 다이어먼드)
Stand up, Left-handers (왼손잡이여, 주저하지 말라)
The Nose (코가 있어야 할 이러저러한 이유들)

英語記事 英語小說/Pop Song/영어로 배우는 독일어 Interview/中東神話/Personality Quiz 젊은 세대에게 주는 글/세계잡지의 기류
英語講座 TIME·Newsweek 英語研究 生活에 응용되는 英語会話 世界有名作家의 名文章研究
音楽 싸운드 앤 뮤직

값 1,700원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5번3
時事英語社
정기구독문의처
서울(764) 1736 (763) 8905
(265) 0509 (260) 2588
부산(43) 3007 (42) 0163
대구(45) 8890 대전 (6) 7176
광주(2) 2376 전주 (2) 0402
수원(5) 9316 인천 (73) 7170

大学生活全書 (전10권)

大学生活의 설계가 一生의 설계!

--大学 新入生 여러분, 이 책들을 읽으면서 차분히 우리들의 앞날을 생각해 봅시다--

大学生活学問
大学生活思想
大学生活教養
読書와 知的生活
大学講義와 노우트
사랑과 友情의 世界
大学生活外国語
大学生活海外留学
20세기의 教養名著
韓国学入門 (近刊)

時事英語社 주문전화 (268) 6621~3 · 各巻 값 2,500원

신문의날 기념

특별논단

초창기 언론과 언론인

4월7일 제25회 신문의날 기념 특별논문으로 우리나라 초창기의 언론과 언론인을 싣는다. 우리나라에서 첫 신문인 한성순보가 1883년에 창간되었고 이후 외세의 침략과 정치적인 격동속에서 첫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1896년에 창간된이래 언론은 어떻게 그시대를 다했으며 어떤 인물들이 한국언론의 전통을 이룩해 왔는가를 인물중심으로 살펴 봄으로써 오늘의 교훈을 얻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 진 석

<동보과교수>

◇폭넓은 민중지도자 말라

우리나라 언론의 주춧돌인 첫 신문지들은 어떤 사발들이었을까.

그들은 어떠한 배경과 사상을 가지고 한국의 언론을 이끌어 왔을까. 언론은 동한 자주·개화파 구국운동을 펼치려 했던가를 살펴 보는 것은 한국의 언론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만이 아니라 한국 근세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신문이 처음 발간되기 시작한 한말에서 일제치하, 그리고 해방후까지도 언론지는 우리나라 근세 인물들의 집결처라 해도 결코 이상한 얘기는 아니다. 이 때에는 박영효 (朴泳孝) 김옥균 (金玉均) 유길준 (兪吉濬) 등이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와서는 서울에서 신문을 발행하도록 장려케 상주 (上奏) 함으로써 신문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려는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박영효는 그냥 신문발간의 필요성을 장려케 하지 기만한 사람이 아니라 실지로 신문발간을 준비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에서 개화운동의 중심 인물이며 근대교육가요 정치가로서 사상은 (時事新聞) 을 발간하고있던 인물인이기도했던 후꾸자와유끼찌 (福澤諭吉) 로부터 이노우에 가꾸고로우 (井上角五郎) 등 신문제작을 도울 일인기자들을 데리고와서 유길준에게 신문 창간을 맡겼다. 이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신문발간 사업은 수신사로 일본에다녀온 박영효가 지금의 서울시장인 한성판윤 (漢城判尹) 으로 임명되면서 유길준에게 신문발간을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883년 3월경이었다.

유길준은 이미 1881년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윤치호 (尹致昊) 등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가 그때로 유학생으로 남아 바로 이노우에 가꾸고로우가 설립한 경응의숙 (慶應義塾) 에서 유학하고은 개화파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새 신문이 창간되기도 전에 박영효가 한성판윤의 자리에서 밀려나 광주유수 (廣州留守) 로 좌천되는 바람에 유길준도 신문이 무덧인가를 소개하나 말았다. 한성판윤 박영효의 주도로 일본유학을 한 개화파 유길준에 의해 준비되던 우리나라 첫 신문은 지금의 외무부격인 통리아문 (統理衙門) 의 박문국으로 넘겨 준비작업이 이관되었고, 그 책임은 김만식 (金晩植) 이 맡게되었다. 김만식은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에 부사 (副使) 로 동행했던 사람이었으므로 그도 역시 외국의 바람이라도 쏘인 사람인 셈이다. 그러나 김만식은 신문발행의 실무자는 아니었고 그의 친척인 김인식 (金寅植) 을 일명하여 창간실무를 맡게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漢城旬報) 는 일본에 수신사. 또는 신사유람단으로 다녀온 개화파들의 주도로 창간되었고, 실지 실무진은 한학을 공부했을 관료들인 주사 (主事) 여규형 (呂圭亨)·고영철 (高永喆) 서사 (同事) 장박 (張博) 김기준 (金基駿) 오용묵 (吳容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기자들이었다.

그러나 일본에 다녀와서 처음으로 신문발간을 준비했던 박영효나 유길준도 그 주도인 정부로든 신문에 관련을 맺게된다.

그후 미국에 가서 서재필 (徐載弼) 과 만나 그의 귀국을 종용하여 서재필이 한성판윤이었던 박영효의 초청을 받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셈이 되었고 그보다 훨씬 나중인 1920년에 일제치하에서 동아일보 (東亞日報) 가 창간될 때에는 삼시 초대사장으로 취임하여 일제하의 언론지 발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유길준은 첫 신문 창간작업을 중도에서 손을 떼어야 했지만 그후 1895년 4월에 발간된 서유견문 (西遊見聞) 제17편 신문지 (新聞紙) 편에 처음으로 외국의 신문현상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고, 이듬해인 1896년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됨에에는 유길준은 내부대신으로 있으면서 신문 창간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한고 신문사 건물을 빌려주도록 주선하는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유길준 자신이 직접 신문제작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초창기 우리나라 신문과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미국 유학인사들의 신문발간

지금까지 서재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셈이고 그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논문들도 적지 않다. 그는 서재필은 독립신문이 창간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창간했고, 제작책임자는 인쇄이 너무나 두텁혀지기 때문에 그가 독립신문을 공기지 마 만들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있는 사람도 없지 않을성싶다.

그가 인쇄사에 우뚝 솟아다, 따라서 숫적으로는 유학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1883년에 창간된 한성순보 (漢城旬報) 의 기자들은 모두가 정부기관인 박문국 (博文局) 의 관리들이었으므로 이들은 일찍기 한학을 공부하여 관리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제작에 참여한 것이다.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지않고 한학을 공부한 인물인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을 골라보면 제국신문 을 창간하여 오랫동안 이끌어 왔던 이종일 (李鍾一) 이 있다. 그는 제국신문을 계승부터 곧까지 합동출판신문으로 만들어 개화기 한글보급과 국어운동에 큰 공적을 남겼다. 한일합방후에는 보성사 (普成社) 라는 인쇄소를 경영하여 (海朝) 주필이 되기도 했으나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이듬해에는 경남 진주에서 창간된 최초의 지방지 (慶南日報) 의 주필을 지내기도 했다. 황성신문에 근무했던 대부분의 기자들은 대개 한학을 공부했던 사람들로서 한국에 몸을 맡았던 사람들이고, 신문사에 있던가 관직을로 돌아가는것도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졌던 것 같다.

황성신문 창간해부터 기자생활 십년째 (成樂英) 이 1906년에 황해도 풍천군수로 임명되었고, 제국신문창간부터 기자였던 장효근 (張孝根) 이 1905년에 경무관 (警務官) 으로 임명되었다가 퍼직, 제국신문 기자였던 이해조 (李海朝) 가 1908년에 평북군수로 임명되었던 것 모두 모두 신문사와 관계 (官界) 의 교류를 밟혀주고 있다.

◇국내서 신학문 닦은 인론인들

초창기 언론인의 세번째 범주로는 국내에서 신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을 들수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손꼽을 수 있고, 그 대표적 인물로는 이승만 (李承晩)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매일신문은 우리나라 최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재학당 (培材學堂) 학생회에서 낸 신문으로 1898년 4월9일에 창간되었는데 그때까지는 독립신문 또는 협성신문 (協成新聞) 이 있었을 뿐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것이다.

배재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이었으는 것기에 이미 한문을 배운사람들이었는데 이승만도 자기 스승이 한문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한문을 공부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매일신문은 한문에 조예깊은 사람들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립협회사건으로 체포되어 5년 7개월간의 옥살이를 견디는동안 옥중에서 제국신문의 논설을 집필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승만은 옥중 생활 때문에 기고하기 스스로 신문편집을 맡기도 했었다.

황성신문은 초대사장이었고, 정치전게 기사때문에 첫 번째 정간을 당했던 신문이기도 했던 것. 국내에서 영어 (英語) 학교에 다닌 신학문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초창기 언론인들은 외국에 다녀왔거나 국내에서 신학문을 공부하여 외국어를 일찍 터득한 사람들이 많았다. 제국신문사장을 지낸 정운복(鄭雲復) 도 일어를 잘하여 그가 지 은 『일어정독(日語正讀)』은 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의 참고서로 널리 읽혔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신문을 발간했던 외국인 기자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적지위, 발행과정에서 복지 일인기자들과 서양선교사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기때문이다.

일인 (日人) 들은 우리나라 첫 신문인 한성순보 (漢城旬報) 의 순비과정에서부터 이노우에 가꾸고로우가 참여했지만, 그중은 이미 독립신문이 창간되기 전부터 서울에서 국한문판신문 한성신보를 발간하고 있으므로 직접 제작기술이나 신문의 체재등에서 그후에 일간지가 시작한 입장지에 이렇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초기 한성순보사장으로는 아라끼재조 (安達謙藏) 가 있었고 한국어에 능통했던 후루가와 마코노쓰케 (古川松之助) 와 나카무라 젠따로우 (中村傳太郎) 등은 언론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침략을 합리화하는 한편, 을사보호조약이후에는 통감부의 신문길잡이로 민족 언론을 탄압하는데 앞장 서기도했다.

1907년 2월 통감부의 기관지로 발행된 The Seoul Press사장 토요모또겐신 (豊本元信) 은 일본에서도 영어신문에는 권위있었던 일본의 The Japan Press 사장을 지낸 정운복(鄭雲復) 도 일어를 잘하여 그가 지 은 『일어정독(日語正讀)』은 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의 참고서로 널리 읽혔다.

『조선크리스도인회보』를 펴, 얼마후부터 『그리스도신보』로 이름 바꾸 창간하여 초창기 언론의 신문발달에 큰 공적을 남겼다.

동란시 신부 암씨화 (安世華) (Florian Demange)가 발행하던 일간신문 (大韓新聞)이 1906에 창간되었고, 영국인 배델(E. T. Bethell)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와 영자지 The Korea Daily News 를 발간하여 항일 논조를 펴므로써 한말 대표되만족언론의명맥을 잇게, 혜던성은 잘 알려진 일이다.

- 한말(韓末)언론 선구자들 탄생:

(1)김만식(金晩植)1834~1900
(2)이상재(李商在)1850~1927
(3)이종일(李鍾一)1858~1925
(4)유길준(兪吉濬)1856~1914
(5)박영효(朴泳孝)1861~1925
(6)박영효(朴泳孝)1861~1939
(7)유 근(柳 瑾)1861~1921
(8)이인직(李人稙)1862~1916
(9)남궁억(南宮檍)1863~1939
(10)장지연(張志淵)1864~1921
(11)오세창(吳世昌)1864~1953
(12)윤치호(尹致昊)1865~1946
(13)서재필(徐載弼)1866~1951
(14)장효근(張孝根)1867~1946
(15)이해조(李海朝)1869~1927
(16)장지연(張志淵)1871~1938
(17)이승만(李承晩)1875~1965
(18)주시경(周時經)1876~1914
(19)신채호(申采浩)1880~1936

사설

축제(祝祭)의 계절에 부쳐

유네스코단연 지난 겨울의 여세 (餘勢) 인지 아직도 남쉬는 장의실에 앉은 우리의 속신 (內臟) 을 음주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영원히 변화하는 대자연의 섭리는 거역할 수 없는 듯 미비로바 동산의 개나리는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거리에 나선 여인네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운 화사해졌다. 곧피는 계절과 더불어 이런 캠퍼스에도 모여든 수많은 젊은이들의 표정도 부푼 꿈을 안은 듯한층 밝게 피어나며 활기를 발하고 있다.

『잔인하다』는 말 4월이 되면 대학가에선 있지못할 정변의 추억을 마면이라도 하려는 듯, 다투어 갖가지 형상가 매년 되풀이하여 일어나게 마련이다. 금년에도 우리는 신입생 환영회를 시작으로 하면서 영어, 독어 등 각종 원어연극과 한국어 연극을 하고, 저명인사들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체육대회를 벌이는가 하면 『모두 모여 이 밤을』 즐기는 요락 프로까지 곁들여 장기간의 축제를 한다. 캠퍼스 안 여기저기에서 음악소리, 호각소리, 마이크 소리가 요란스레 울려 퍼지고, 부산하게 돌아가는 무리들이 사방 진다닙에 널려 있는데, 이러한 고조된 음직임은 아마도 개교 기념일 즈음에야 절정에 달했다가 다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인들이 이러한 형사를 즉 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겠다. 일생 60년에 비교해 볼 때, 4년간이나 대학시절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 때에도 비길 수 있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면 우리를 삼제게 하는 귀중한 기간이다. 단한 순간도 헛되이 보내서는 할일 있어서, 힘차게 미래의 긴 여정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나 험난한 세계무대에 나아가 강대국들 틈에 끼어 실력 대결을 해야만 하는 외대인들은 보다 막중한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단 3개월만 고립되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울어죽을 운명에 처할 우리의 상황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해나하면 외대인은 한국인의 입이 되어 세계 속에서의 이 나라를 지키고 가꾸고 또 키워나가야 할 과제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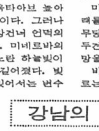
눈을 한번 박으로 돌려 보라. 한잠 학구에 전념해야만 될 이 귀중한 시기에 대학인들이 되지고 정기리지며 축제나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가를 그들은 우리처럼 수업조차 거절하며 기분풀이를, 젊음의 발산을 위한 행사를 하지도 않지만, 우리처럼 요술으술한 고심에 앉아 장의를 받지도 않는다. 그들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부럽기 보다도 그들의 건실한 국민성과 풍요로운 문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신적 및 물질적인 면에서 이러한 풍토를 하루 빨리 이 나라에 조성시키는 일도 또한 외대인의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젊음을 만끽하기 위해, 순간의 낭만을 위해 그 태도 즉 행사를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대학인답게, 결코 요락적인 것이 아니라 젊게 학구적인 축제만을 해야 하리라.

독립신문은 한국언론의 전통이며 정신적 원류

한말에서 해방후까지의 언론계

한국 근세 인물들의 집결처이며 근대사의 축도



미네르바

▲아이들의 고함소리가 들린다. 빛의 길이 만큼 늘어난 그림자를 따라 한옥타아브 높아진 소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강건너 언덕의 소리이다. 미네르바의 뜨락엔 노란 하늘빛이 머문다. 시계탑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빛과 그림자(어둠)의 비율에 있어서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도를 0으로 하는 뜨거운 경계선에서 자리의 이동일 뿐이다. 빛은 동지때부터 길어지고 그림자는 하지때부터 길어지는 사실이 지리학 역설로 풀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변수 아닌 상수의 존재는 하나의 현상에서 생성된 토마나피런상인 것이다. 그러나 봄거리의 황사에 의해서 눈강아비리는 그톤된 사고방식으로 또 하나의 현상이 넘겨질 줄도 모른다.

▲어른의 아버지인 아이들의 노뼈귀거 기울이면 어떤 시인 (詩人) 처럼 어제에서 말려오는 오늘의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 시인 (詩人) 이어본다.

강남의 볼

▲아이들의 고함소리가 들린다. 빛의 길이만큼 늘어난 그림자를 따라 한옥타아브 높아진 소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강건너 언덕의 소리이다. 미네르바의 뜨락엔 노란 하늘빛이 머문다. 시계탑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빛과 그림자(어둠)의 비율에 있어서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도를 0으로 하는 뜨거운 경계선에서 자리의 이동일 뿐이다. 빛은 동지때부터 길어지고 그림자는 하지때부터 길어지는 사실이 지리학 역설로 풀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변수 아닌 상수의 존재는 하나의 현상에서 생성된 토마나피런상인 것이다. 그러나 봄거리의 황사에 의해서 눈강아비리는 그톤된 사고방식으로 또 하나의 현상이 넘겨질 줄도 모른다.

▲어른의 아버지인 아이들의 노뼈귀거 기울이면 어떤 시인 (詩人) 처럼 어제에서 말려오는 오늘의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 시인 (詩人) 이어본다.

강남의 볼을 가로지르며 뛰어가던 어른의 아버지인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들린다. 볼잔에 서서 흘러간 소리들모아 보련다. 봄의 아이들이 뛰어 갔다 뛰어온다.

<호>

문신납독

◇김만식 ◇박영효

여름방학을 미국대학에서

ELS/시사영어사 주관

대학생 어학연수

■ 여름방학 코오스 제2기 2차 모집 ■

장소 — San Francisco 소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mpus를 비롯해서 New York, Washington, D.C., Los Angeles, Boston등 23개 주요 도시(성국도 따로 모집 중)
2. 기간 — 81년 7~8월 방학중 4주간
3. 자격 — 남녀 대학(원) 재학생
4. 경비 — 등록비 약$950(숙식비 포함) 항공료는 단체할인 가능
5. 신청 — 81년 4월 18일 까지 본사 ELS 상담실로

時事英語社 종로구 관철동 5-3 (269) 6620~9

여름방학에 London에 가서 영어회화를

시사영어사 주관

대학생 영국 어학연수

1. 학교—(1)20여명의 영국수상을 배출한 London 근교의 저 유명한 Eton College.
(2)London 중심가에 있는 Cambridge School of English.
2. 기간—81년 7~8월 방학중 3~4주
3. 자격—남녀 대학(원) 재학생
4. 신청장소—시사영어사 ELS상담실
5. 신청기한—81년 4월 18일 까지

※자세한 것은 오셔서 상담하십시오.

時事英語社 종로구 관철동 5-3 (269)6620~9

유학서류 및 번역 안내
▲유학서류상담및 대서
· 원서·재정보증서·영장자교유명 · Autobiography · Study plan
▲한영문 번역은
기타서류일체
관인·등기번역사 (WY T)
(Woo Jyang Translation)
동화문우체국 맞은편 표준빌302호 전화 74—3962

clover 한글영문 타자기
현금가 3회 분할판매중 한글 : 85,500 영문 : 77,500
힐미스종합사무기
☎777—2949 4045

안경은 시력검사에 따라
광 신 안 경
▲프로즌▲백내장▲가벼운렌즈
☎5559 성북구안암동 1동 (3·1빌딩상도빌딩 4)

●各級試験 준비講座
TOEFL (Barron's 原本) (李在玉班)
(就職·대학편입試験·유학자격試験対策)
不動産 鑑定士 종합강좌
(法規·民法, 会計学, 経済学, 鑑定評価法令理論)
大学編入英語·数学·国語.
개강 : 每月 1日수시接受可 (教材판매中)
公平学院 플럼비아학원
☎0706-鍾路네거리 鍾閣앞 和信·신생·열공목

男·女 알바이트급모
광화문 동아일보 한국프레스센터 (신문회관) 202호

軍 행정병모집
종로1가 서울YMCA 맞은편
●만17~25세 소졸고교유무형정병으로인해 군복무중인자 ●학사고졸자는 군사특기자 ●사무직 ●운전직 ●기술직 ●기능직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사무

클로즈 업

학내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책

——구내식당 다방 서점 매점을 중심으로

졸업정원제 실시에 따른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비좁은 캠퍼스는 완전 포화상태에 이르르고 있다. 더구나 이번 학기까지는 용인대학생1, 2학년 1천여명이 본교에서 수업을 받게되어 있어 만원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내복지시설이 양적 확장이나 질적 향상의 폭은 훨씬 미흡하여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구내 식당과 다방, 매점에서 받고 있는 음식이나 학용품등의 가격이 다른 대학에 비해 너무 비싸 학생복지시설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불만도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본보에서는 종합대학교 승격에 따른 대내외인 문제로서 구내 식당, 서점, 다방등을 중심으로 학생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김진자주>

운영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학생들의편익을 중시해야

학생복지시설의 개념은 강의실, 실험실, 구내 식당, 서점, 도서관의 학내 시설 이외에도 장학금 지급, 식여류 보조, 기숙사 시설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복지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권인되지 않은 캠퍼스 생활을 이루어 가는데 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는 하나의 작은 사회를 원활히 가동시키는 윤활유기능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지는 외의나 비중은 실로 크다.

이러한 학내복지시설은 물론 외형적인 규모나 산술적인 차원을 무시할수 없으나 기존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적절한 보완을 통한 개선책의제시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번에 이루어진 학내복지시설 확장의 하나로서 구내식당및 다방, 서점의 확장을 들 수 있는 데 구내식당은 3백여석에서 5백20석석으로 2배20석 정도로 증축하였고 구내다방도 좌석의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Ⅱ 문제점

①구내 식당

구내 식당의 확장과 더불어 음식값의 대폭 인상이 있었다. 즉 가락국수가 2백50원에서 300원으로, 볶음밥 쌀장밥이 350원에서 450원으로 하이라이스,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치킨라이스가 450원에서 500원으로 갈색장이 480원에서 550원, 국돌이 5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올랐는데 이는 일반 시중 음식점의 가격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더구나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구내 식당 이용자 수를 감안해 볼 때 그 인상율의 폭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식당 경영자인 박태현씨는 「캐스팔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번 인상은 불가피 했으며 음식의 질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가격은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더 확장시켜 학생들의 불편을덜어 주겠다」라고 말한고있다. 그러나 이것도 전적으로 수긍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대학의 음식값과 비교해서도 비싼 편이다. 아래는 타 대학들의 음식값을 도표화한 것인데 이를 보더라도 본교의 음식값이 싸지 않다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

<각대학의 식당 규모와 음식값의 비교>

대학명	총학생수	식당좌석수	1좌석당학생수	운영방식	우동	볶음밥	잡채밥	카레라이스	백반
외대	7,300	520	14.0	민영	300	450	550	500	600
서울대	20,000	1,500	13.3	직영	250	400	400	×	400
연세대	10,000	850	11.7	민영	200	400	450	350	400
동국대	7,500	580	12.9	민영	200	350	350	300	350
숙명대	4,200	400	10.5	민영	180	300	×	500	×
경희대	11,000	500	22	직영	300	×	×	×	500

※대학원생수는 제외
※메뉴는 본교와 공통되는 것만을 다루었음.

이와 같이 대학의 식당 경영자들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식단의 종류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같다.

②매점과 다방

매점과 다방도 모두 민영으로 되어 있으며 가격도 타 비싼 편이다. 구내다방의 커피값은 이번에 150원에서 170원으로 올랐는데 90원보다 10%정도 싸게 팔고 있으며, 연대는 4개소의 구내 다방 (휴게실) 가운데 한곳은 학생서어클에서 맡아가며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죄비로 유용케하고 있다. 학용품은 시중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 데, 그 종류가 너무 적어 대부분 구내 서점에서 사지 못하고 학교밖, 문방구로 달려가야 하는사례가 많다.

③서점

구내 서점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그 규모가 적고 판매서적의 종류가 협소하다는 것을 들수 있겠다. 미네르바의 신전들로 서점이 확장, 이전하였다 하나 사실 넓로 넓어진것도 없는 연대서점 (휴게실) 가운데 한곳은 학생서어클에서 맡아가며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죄비로 유용케하고 있다. 학용품은 시중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 데, 그 종류가 너무 적어 대부분 구내 서점에서 사지 못하고 학교밖, 문방구로 달려가야 하는사례가 많다.

Ⅲ. 운영문제와 개선책

학생복지시설의 운영방법으로는 입대에 의한 민영화와 학교 또는 학도호국단에 의한 직영화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현재 본교는 민영을 택하고있다. 운영방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백락기다 학내복지시설이 학생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윤추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직영화되어야 한다는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직영으로 할 경우 운영이 소극적으로 되기쉬워 활성화를 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운영방침의 결정문제는 사전에 충분 검토가필요할것이다.

과거에 직영으로 학생복지시설을 운영하던 학교가 근자에 와서 민영으로 전환하는 예가 있는데, 이는 직영화로 인해 야기된 소극적인 운영으로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본교와 같이 민영화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도 그 가격과 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운영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학생들의 편익을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우리학교도 가격과 질의 결정에 충분한 고려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대의 경우는, 운영이 비교적 쉬운 휴게실과 서점을 직영으로 하고 있으며 식당을 민영으로 하는 이원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또한 서울대의 경우는 조합의 형태를 갖추고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마진을 최소화하여 가격을 싸게 하고 있으며 구내 식당이나 매점에는 학교당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싼 값으로 판매케 하고 있다.

원래 민영화 되었을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려는 개인 경영자와 가격을 낮추려는 학교측의 입장이 상충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다른 학교의 학내복지시설 현황및 학내외 여러가지 제반 사정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그 가격을 결정해 주고, 개인 경영자 측에서는 그 대상이 학교나 학생이라는 점과 학생복지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될수있는 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김영권기자>

학생들에게(2)

김 명 수

<행정학과교수>

전공및부전공의선택

대학에만 들어 가면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으로 생각했던 학생들이 캠입인지 자꾸는 본다. 물론 그러한 생각을 결혼반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직한 것이긴 해도, 그 책임의 일부가 전공의 잘못된 선택에도 있다는데 한번 주의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즉, 자기의 적성에 알맞는 학과는 X학과인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X학과에는 실력이모자라니 그보다 낮은 잣은 대학의 Y학과에 들어간경우 그러한 방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 된 결정은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식된 즉시 바로 잡는 것이 좋다. 그러한 방향전환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바로잡지 않는 다면 당사자는 보다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헤어 나오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애통해 보아도 그 때는 이미 늦었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현명으로는 자신의 결정이 정말 잘못된 것이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Y학과가 정말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는가? X학과가 정말 자기의 적성에 맞는 학과인가?

확고한 관단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들어온 학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좀 더 자기 적성에 맞지않고 막연히 생각되는 학과목은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수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다. 실상 대학교 1, 2학년때 자기의 적성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그리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의 순간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게된다. 이러한 경우 교수님들은 좋은 상담역이 될 것이다.

공부는누가하는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가 공부를 하는것인지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가끔 있다. 교수는 꼬수대로 연구를 한다. 연구는 교수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를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 는 것이다. 남이 자기 공부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잘이 공부하는 열의 등등가 잘 된다고 하여 자기도 잘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어리석음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자기 인생은 남 아닌 자기가 사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을 계획해야 하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겠는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아는 것은 자신이다. 자신의 부족한 점도 자기가 제일 잘 안다. 이러한 자각위에 부족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주춘한 자기노력이 미학생 활에서는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일마전 대학생과외라는 신문기사를 본 일이있다. 한심할 뿐이었다. 그러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어떻게 적응해 나갈가 두렵 걱정되지 않을수 없다. 그 학생들의 머리속에는 아마도 사회에 나오 더라도 자기가 담당하는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가정교사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모양이다.

교수의 연구실은 적어도 학생들에게는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먼저 자기 나름으로라고 들타가 혼자 힘으로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학생이 생각해야 할 사람은 바로 교수인 것이다. 그러한 학생의 발걸음 넓게 생각지 않을 교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지불하는 등록금 속에는 교수의 학생에 대한 이러한 써비스도 이미 계산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학생들의 공부와 관련하여, 우리는 「일부대학」이두루 미학」「상부대학」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일부대학을 만드는가? 또는 내가 일부대학에 머 다닌다는 것이 남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각물음에 대하여 여러가지의 대답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학생들에게 중요한것은 내가 일부학생인가 아니면 상부학생인가이다. 즉, 내가 공부를 하지않아 낙후되어 있다면, 내가 일부대학에 다닌다하여 일부학생일수는 없는 것이다. 반면에, 상부대학에 다닐지라도 실력으로 보아 일부학생이라면, 상부대학에 다니는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독서

독서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이다. 보지라면 물론 방향표수님들께서 추천을해 주시니 문제가 없겠으나,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서적을 더 읽어야 할 필요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읽을 책의 선택문제는 언제나 중요하다고 하겠다. 어기에서 학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이야기는 F자기의 책읽에 있는 책을 선정하라는 것이다. 여러가지 기준을 제시할수 있겠으나, 책읽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읽어서 이해할수 있는 책이어야한다.

아무리 남들이 잘 쓰여 진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읽어서 이해할 수 없는 책이게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독서와 관련하여 물책로 중요한 것은 독서의 양이다.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량이 다른 선진국의 학생들에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껴왔다. 거기에는 물론 독서를 위한 제반 여건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학생들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모양이다.

• 고등학교를 마치는 동안 밤을 새워가며 공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대학생활 가운데서는 예습이나 복습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학생을 본 일이나 그런 경우를 들어 본 일이 없다. 밤을 새워 가며 공부하여야 할 학생은 중·고등학생이 아닌 바로 대학생·대학원생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장차 실에서 변명을 자주 듣는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학생들도 웃고 나도웃는다. 그러나 웃고 난 다음에는 씁쓸한 기분을 떨쳐 버리기가 어려움을 이럴 수 없다.

읽어야할 모든책을 다사서 읽요라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읽어보아 귀중하게 느껴지는 책은 아무리 아무리 사모아도 지나칠전 없을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학생들과 교수들의연구육구를 충족시켜 줄수있고 도그때아 되는것이 바로 도서관이다. 부디 신입생들은 하루빨리 도서관이용을 습관화해 주기 바란다. 도서관은 단순히 독서실이상의 것이라는 점도이해할 필요가있다.

<계속>

학생소고

대학의 자유

동 세 호

대학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장소이다. 진리는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에서 얻어진다. 대학이 진리탐구와 교육의 장소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여야 된다고 할때 이는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코 가능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각 대학마다 자치(自治)와 자유(自由)가 강유될 수 있어야 다채다양 (多彩多樣) 한 민족문화가 창조되는 것이며, 희일성을 벗어나각각 특색있는 전통이 키워질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의 자유에서 발견된 진리가 때로는 위정자에게 불편을 줄 수가 있다. 그때도 누구나 <간트>의 말과 같이 대학의 자유를 존중하여 그 진리를 보배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의 진리는 어느 특정기간의 정치적 이념만을 위하는것이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의 진리란 어느정도 현실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가 되어야한다는것을알아야한다.

진리는 학문의 자유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발견된 진리는 사상적 자유경쟁 시장에서 승리한 것이라야 진리가 될 수 있다. 연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사상의 자유경쟁을 막고 오직 하나의 사상, 하나의 철학적 (이념이) 있다고하면 그것은 사회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역사의 법칙에 적응할 수 없게된다. 다양한 인류를 생명으로 하는 역사인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상적 자유경쟁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위해 학문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을 보호하고 육성하기위해대학의 자치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유란 무엇이며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자.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대학이란 서구적 개념이지 한국적 개념은 아니다. 대학은 중세 길드사회의 한 산물이다. 근세 시민사회의 전신인 길드사회는 동인인이 자유로이 결합하여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였고 이런 사회에서 선생 길드가 생기고 학생길드가 생기게 되었다. 선생의 대학과 학생의 대학이 조합결합되도록에 이른바 대학이 성립되고 제도적인 목적을 위해 군주나 교황은 이런 대학에 자치와 자유를 공인하였다. 서구의 유서깊은 대학들은 이렇게 선생의 대학과 학생의 대학이 조합·결합해서 성립된 대학이었다.

여기서 선생의 대학이란 선생을 하려는 사람들의 동업조합이요, 학생의 대학이란 학생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의 동업조합이다. 따라서 이 때에는 누구나 이 조합에 들어가야 대학인이 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대학의 자유란 트랜스칸티나 지역 대학들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자유와 가치가 법적인 제도로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대학이 국가나의 학문기관으로서 상아탑(象牙塔)의 권보이념과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자유와 자치를 누렸다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은 백년지계 (百年之計) 를 위한 대학으로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데 노력해 왔던 것이다.

교육과 연구의 자유가 대학의 생명이라면 우리의 대학은 그런 면에서 많이 희생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어떤 교수는 돈과 교육과 연구가 목정한 목적을 위해서 경직되거나 종속적이어서는 안되며 교수가 학원에서 죽을 날까지 나 돈과 권력에 타우되는 비양심적 행위가 있어서도 안된다.

대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학의 자유는 민족의 자유요, 국가의 자유이며 또한 이상적 고귀에서는 세계인류의 자유의 기본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한국 지성사에 있어서 대학의 위치는 중요하다. 공리를 발견하고 가르치며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배양하는 것도 대학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지도자가 대부분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는 어느 시대,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대학의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모두 알아야할 것이다.

<L·2>

교수는 투명인간

○…3학년 부전공과목중 영작문 강독 장기 휴강을 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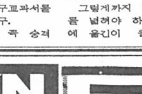
개강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담당교수의 모습을 보았다는 학생이 하나도 없고 벌써 강단밑을 등 넘듯 바라 볼 뿐. 비단 동목금 생각에 아서운 마음은 말만 동동 구를 밖에. 교수님은투명인간인가 소리쳐도 대답없는아우성만 질박에.

○…어학생휴게실이 지하로 이전한후에 혼산상들의 발길이 뜸해졌다는 중론. 이유인즉 휴게실자체는 그리 어둡지 않으나 지하로 들어 서는 감감한 입구가 그 안도 어두울것이라는 선입견을 낳아 발길을 머뜻거리게 한다고. 혼산상을 책도 잘 표지가 산뜻해야 더욱 읽고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아니냐고 투덜투덜.

○…신학기를 맞아 학구열에부푼 일부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고.

부전공과 모연 어실습 교재의일부가 개정되었는데 미처 개정된 테이프구입이 되지 않았던못 해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찾으려고 한참 책을 뒤적이던 학생들은 뒤늦게 교과서가 개정되었다는 것을알고. 허탈하게 웃으며 왈, 그렇다면 미리 개정되지 않은 구교과서를 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구.

○…승려 결혼속에서 곡 승려의 반짝여야 할 한가지가 빠져있어. 학교의 상징이랄 수 있는 교문의 교패가 종합대학이 웜파동시에 행방이 모연하다고.



사람들아! 영광은 우리의 것만이 아님인데 오가는 사람들의는 길도 한번 쯤볼 잡아 두어야 하지 않겠소.

○…흡산즈유일의 산책지인 미네르바의 수목들이 용인대의 단장미일 (?) 아래 을 위한다는 명분 가졌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좋은 캠퍼스를 넓혀야 하느냐는 한혼심의년에 올긴이 왈 밉깊된 나무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분의 속깊은 고종도있겠소만 학생의 소견도 깊이 생각하였으면….

○…열람실 출입문들이 어말을 때마다 소음을 내 도서열람 자리한 자리에서 학구열을 태우려는 도서관학과의 학우 고고(高高), 삐그벅거리는 소리가 멀리 구석까지 들리지는 않더라도 출입문 근처에 앉은 학생에게는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 모양.

로비의자의 제거로 인성(人聲)이 사라지자 그 미심에 물성(物聲)이 기승을 부리는 모양이라고….

인성(人聲) 대신 물성(物聲)이

교육및 연구의 자유가 대학의 생명

길드가 생기고 학생길드가 생기게 되었다. 선생의 대학과 학생의 대학이 조합결합되도록에 이른바 대학이 성립되고 제도적인 목적을 위해 군주나 교황은 이런 대학에 자치와 자유를 공인하였다. 서구의 유서깊은 대학들은 이렇게 선생의 대학과 학생의 대학이 조합·결합해서 성립된 대학이었다.

여기서 선생의 대학이란 선생을 하려는 사람들의 동업조합이요, 학생의 대학이란 학생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의 동업조합이다. 따라서 이 때에는 누구나 이 조합에 들어가야 대학인이 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대학의 자유란 트랜스칸티나 지역 대학들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자유와 가치가 법적인 제도로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대학이 국가나의 학문기관으로서 상아탑(象牙塔)의 권보이념과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자유와 자치를 누렸다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은 백년지계 (百年之計) 를 위한 대학으로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데 노력해 왔던 것이다.

교육과 연구의 자유가 대학의 생명이라면 우리의 대학은 그런 면에서 많이 희생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어떤 교수는 돈과 교육과 연구가 목정한 목적을 위해서 경직되거나 종속적이어서는 안되며 교수가 학원에서 죽을 날까지 나 돈과 권력에 타우되는 비양심적 행위가 있어서도 안된다.

대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학의 자유는 민족의 자유요, 국가의 자유이며 또한 이상적 고귀에서는 세계인류의 자유의 기본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한국 지성사에 있어서 대학의 위치는 중요하다. 공리를 발견하고 가르치며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배양하는 것도 대학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지도자가 대부분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는 어느 시대,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대학의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모두 알아야할 것이다.

<L·2>

"정말 불쾌하고 기분 나쁩니다. 걸핏하면 「대학생놈들 제깐 놈들이 뭘 알아?」 하시는데,,"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했읍니다. 상기된 얼굴로 얼변을 토하는 어느 대학생의 아픔과 고뇌, 방황과 좌절, 희망과 절망이 이 책의 책에 다 담겨 있읍니다.

79년 80년 대학 학술상 및 대학 문학상 수상작품!

캠퍼스의 스타들

예술상 보다도 독자의 흥미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업주의에 치중되지 않은 신선하고 참신한 저성들이 자기 세계를 그 나름대로 부당히 보고 진리된 진실한 자기체험의 성숙과정.

경북대·신 추강/경운대·이 탁수/서울대·김 동창/홍익대·이 중희/중앙대·홍 영식/국민대·조 정순/상명대·탁 현명/부산대·김 순미/이화여대·박 혜주/서울대·조 석현/성신여대·정 미경/외국어대·고 명은/중앙대·송 재선/한양대·허 마구/서울대·서 마현(추순)

• 이주희 지음 • 값 2,000원

• 신 국란 • 값 2,300원

대학의 실상과 허상을 날카롭게 파헤친 문제작!

F학점의 천재들

대학생의 방황과 좌절, 고뇌와 아픔, 희망과 절망!

대학가의 환상과 세계

안이하게 대학생들이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추상화된 기존 밑서와 표절된 사상과 철학을 선택없이 받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권리와 현명함이 당신들에게 있다.

• 신 사무관 • 값 2,000원

미팅 결국은 본전 생각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미팅하고 이익 본놈없고 미팅 주선해서 손해 본 놈 없다"는 새로운 유행어까지 생겨났다.

좋은 책 좋은 독자를 만드는

신원문화사

서울·동대문구 창신동 137-201 전화 93-4343/93-6128

• 지금 가까운 서점에 들러십시오.

한국 소프트 렌즈

상담환영

속독

매년 2가 12(동신빌딩3층) ☎ 74-9552

한국독서능력개발연구회

• 광화문지회 (세종문화회관옆) 금주는 3시. 72-5205

• 흑석지회 (중앙대 앞 84번종점) 금주요 5시 828-3779

AFKN 이렇게 듣는다

時事英語學院 金 哲 浩 著

■ 4×6배판 376page ₩ 4,500

■ Cassette Tape 5권 ₩ 15,000

Hearing 時事英語의 驚異的인 길잡이

단어의 발음과 어구 사이의 발음 연결발음 상세히 설명하여 청취상의 난점을 완전해소.

방송영어의 Style, 문법, 어구 등을 구체적인 예시로 해설.

News의 중요부분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일기예보, 공지사항등 각부분을 총망라.

구체적으로 파려진 공부한 연결 문제로 Hearing훈련을 강화.

라디오와 TV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Drama연습.

도서출판 三志社 254-4560 (총판)한국출판협동조합 72-7185

SAMJI BOOKS

자유 음악 이야기

長篇小說

니코스 카잔차키스 영혼의 絶叫! 絶叫!

朴榮範譯

바람이 불어온다. 글어버린 대지위에 생의 자유를 찬미하는 뜨거운 바람이 분다.

끊임없이 짓밟히고억압받아온 크레타섬 원주민들의 숭고한 인간해와 열렬한 저항

대형국판 上·下각권 2,200원

정시 (763) 7469

大學 졸업의 出口가 좁아졌다! 성공적인 大學生活과 學術硏究의 지름길을 제시한 話題의 書!

캠퍼스 라이프 1460일

A학점 리포오트 작성법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국민/정맥인쇄/80 미생 모조/호화판판 ※5版부터 모조가 리뉴얼되었습니다 현행정가 각권 2,000원

서울 종구 광희동1 가39-1 동진빌딩 101호Tel.251-4629

새론기획출판부

교수수상

무우가 안되는 섬

학촌(鶴村) 이범선편 ③

6·25 사변 때 많은피난민들이 부산 앞바다에있는 거제도로 피난을 들어갔다.

피난짐을 내려놓은 그들은 산허리에 막을치고 살 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렇게라도 기거할 곳을 마련하면 우리 한국사람은 우선 김치 생각부터 나는 법이다.

그들은 조그마한 포구시장으로 김치거리를 사러나갔다. 그런데 웬일일까 섬 아낙네들이 광주리에 많아 놓고 팔고있는 무우라는게 꼭 도라지였다. 그렇게 작은 무우에 잔뿌리만 수염처럼 달려 있는 것이다.

「아니 무슨 무우가 이렇습니까?」 하고 피난온 부인들이 물었다.

「이 섬에는 옛날부터 무우가 되질 않는바요.」

섬아낙네의 대답이었다.

「그럴리가 있어요? 좀좀은 종자를 사다 뿌려보시지 않고.」

「왜 우리라고 좋은 씨를 안 구해다가 뿌렸겠수. 그대도 이랬죠.」

「그거 참 이상하군요.」

그러나 피난민들은 그저 그런가보다하고 지나쳐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네가 막을친 옆을 곡괭이로 깊이 파고 거기에 무우씨를 뿌렸다.

몇달이 지났다. 그들은 무우를 뽑아보았다. 그랬더니 어떤가? 팔목같은 무우가 쑥쑥 나오는 것이아닌가.

놀란 것은 섬사람들이었다.

이상한 일이라 했다. 섬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농사를 지었어도 일찌기 그런 무우를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다르다면 피난민들은 우리처럼 조그마한 흐미를 쓰지 않고 아주 곡괭이로 푹푹 깊이파고 심는 것 그것 뿐이던데.」

섬사람이 하면 말이다.

그렇다 바로 그 점이다른 것 뿐이었다. 그것이그렇게 도라지 같은 무우와 팔목같은 무우를 만드는차이점이었던 것이다.

그 해부터는 섬사람들도 손바닥만한 흐미로 돌밭을 작작작작 긁고 씨를 뿌리기를 그만 두고 곡괭이로 흙을 푹푹 파고 심었다.

그리해서 조상때부터 무우는 도라지 정도밖에 안된다고 알려져 있던 섬에 팔목 같은 무우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 생활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만이 그렇게 어리석었던 것은 아니다.

남이 본다면 우리 국민 전원이 그런 어리석음을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은 못 사는 메서 어떻게든가 벗어나 잘 살아보려는 마음 대신 가난을 참는 법을배우고있다.

남들이 무엇이건 잘하는것을 보면, 진 섬사람들처럼 흐미를 쓰지 않고 아주 곡괭이로 푹푹 파고 심는 것 그것 뿐이면데.』

섬사람들은 피난민들의농사를 잘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한번 놀랐다. 피난민들이 뿌리는 종자나 자기네가 뿌리는 종자가 조금도 다름이 없었고 또 무슨 특수한 거름을 주는 일도 없었던 것이다.

『다만 다르다면 피난민들은 우리처럼 조그마한 흐미를 쓰지 않고 아주 곡괭이로 푹푹 파고 심는 것 그것 뿐이던데.』

그들이 하는 말이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종자든가, 그렇지않으면 무슨 특수한 비료를 쓰는게 분명하다고들 생각했다.

섬사람들은 피난민들의농사를 잘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한번 놀랐다. 피난민들이 뿌리는 종자나 자기네가 뿌리는 종자가 조금도 다름이 없었고 또 무슨 특수한 거름을 주는 일도 없었던 것이다.

(시)

오수(午睡)

김 광 식 <A·2>

I

오후를 헤메다—헤메다
조금은 멀어지는
산과 강을 지어다 본다.

강을 따라
먼길을가다, 터벌터벌 걸어가다
이름모를 산새 소리에도
주저앉아 울어보기도 한다.

때로는,
버드나무 가지로 후이적 일어나
가물좋은 앙가쳐여 생각에
불지피면 숯덩이의 기온처럼
폐가에 누워서,
불위에 심취해가는 뿌리의 때반 (始盤) 을
생각하기도 한다.

II

절벽을 따라 스치는 바람,
산이좋아 울어본다.

III

기억하지 않아도 될
산과 강이 좋아
발아래 굴러가는 세월에도 웃다.

깊게 들어 감수록
드리워진 풍경에
물뿌리 하나 씹으면서
음달셈 마시려면,
발아래 굴러가는 세월에 또웃다.

물위에 잠겨앉아
산하 (山河) 를 얘기하며
별빛에 생어
깊어오는 산과 강의
소리를
잡아보다.

석(石)과의 대화

지리산에서 띄운 편지

최 경 란

한길이념을 뜻한설해 (雪海)의 장(場). 그속을 헤집고 지나는 물속날속한 밤 고속들. 그위에 부딪게버티고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차가운 겨울 바람을 뼈에 받는 한갖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存在)가 되어간다.

내 이름 석자를 바다위에 뿌리고, 호젖한 웃음을 너털 너털 웃어 본다. 내 Pickel 끝에서 힘껏에 새겨지는 「최경란」자(字) 위에 어느새 미끄러지듯 퍼져가는「바보」.

『넌 왜 왔니 ?』 누군가로 부터 그런 질문을 받자기 받자 『넌 왜 사니 ?』 처럼 해답은 없이 공없는 물음만이 메아리 칠 뿐한 질문이라 여기면서도, 막상 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저 밑바닥으로 부터 묵직한 것이 꿈틀하고 솟솟음 치는걸 느낀다.

사람의 흔적이라곤 아무 곳에도 없고 다만 이름모를 짐승의 발자욱만이 전설속의 슬픈 옥새 자욱처럼 잠잠히 남아버린 이산에서 난 있려저 가는 내 자신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메말이 희미하게나마 입안을넘돌고 있었다. 그러나 입밖에 내는 순간 소리는 제기능을 잃고 사라질것 같아 속언자 (默言者) 가 될 수 밖에. 침묵 이라는 여과 과정을 거쳐 오로지참말만을 하고 싶고, 침묵의 조명을 통해 말말한 말을 하고 싶으나키, 자아를 심어버리고 허탈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는 항상 근원 (本) 을 찾아, 물 속에 제 그림자를 던진 채, 슬픈 모가지로 먼 미 산을 바라보는 노천명의 사슴이 된다?

깊은 안개속에 묻혀버린 과거는 잊어버리고 밝은현실속에서 냉철해야지. 등그러미는 냉냉물과도 마냥찰은 자리에 설 뿐이니키.

오리고 또오르고, 헉헉거리고, 밤톨리고 간식먹고, 중식먹고 그리고텐트치고. 어떻이 틀째 우리의 산행은 시작하여 종일을 눈과 씨름하다 저녁 노을이 지리산의 하늘을 수평선위에 그것처럼 곧게 물들일 때 하루를 가늠하키. 어물 어물 기어드는 땅거미속에조가경위의 글목은 붉은 하늘로 하얀연기를 내뿜고넓진 장작불을 지핀 아궁이위 가마솥에선 자작자작맛있는 누룽지가 날 기다리던 어린시절의 구수한 내음이 계곡을타고 내려골에 물신 풍겨줄것같은 저녁이 란다. 절없는 나그네는 그 포근함에싸여 하루의 피로를 모두잊은 채 눈물(?)을 지울수밖에.

머칠 전면 글리세이딩 (glissading · 눈썰인 비탈을 걸어내려 가지않고 미끄럼을 타듯이 내려가는 등반기술) 을 하다가 미쳐 제동을 못해 그대로 굴러버렸고, 커다란 나무가 나를 삼켜단다. 카마득히 밀어질 듯한 의식을 붙들면서 눈은 울고, 입은 웃고. 어느것이 「나」이면가?

해지처럼 인에다 음식을 우셔넣고, 계처럼 눈이 잠린 방바닥을 굴러야 하는 우리의 밤이 가엾고, 벼락맞아 바버린 벼랑 위의고목 (枯木) 이 가엾고, 엄사 전 논나리에 우뚝 선 오박삼이부인상상 (無人山婦) 과 닮아진 참돈, 그 바깥 빗물이 가엾다. 그 속에 뚜그리고앉은, 새카맣고씨퍼하여 짱뚱만끼면 영락없는 거지꼴인 우리들이 더더욱 가엾단다.

허지만 잊지 못할 즐거운 일들도 많지. 눈 길에 어떻게 산을 오르나며 가다가 즐거웁장 자기네 집으로 들아 오라시면 보답 집 아주머니의 훈훈한 덤 이어지는 일학년 친구가 만든 눈어인은 참으로 절묘이었지. 구불한 긴 머리, 오목한 코, 중만한 키슬, 그리고 배의 주름, 모두닮진 조화를 이루었으나 팔만이 길짝이, 그 조화를깨뜨고 있었지. 허지만 그것도 배웨이라면 배웨일 수도 있겠지.

손가락 하나 넣을 곳없이 총총한 밤과 별을 올려 올라오는, 내 숨겨든 사랑 같은 뜨거운 명이라가 있었지. 난 그날 내 몸으로 가림 못이 마주보고섰어. 저주가 있었더라면 빈 진 시라도 한 수 읊조려 낼 수 있었으련만…. 시간이 멈추어 그 순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카메라에 옮겨 담고는 발걸음을 옮겨야했던 날, 우리는 3시간을 허리까지빠지는 눈 속에서 헤매며 저녁는 설날을 마셔서는 안되는 종작설에 도착했단다.

1km밖에 안되는 거리를 3시간만에 도착했으나 설물은 없고 고드름만이 코끼리등에 파리 붙듯 바위 골에 걸려 있었지. 고드름을 누구보다도 좋아하던친구가 마셔 건네주는걸받아 주저주저 씹는 입술이 조금은 떨릴수밖에. 목마른 김에 맛은 더욱 좋은 것 어쩌니 상사병으로 죽은총각이 저녁한테 씌우는 것이 아닐까 우려도 피지만 고드름 먹지 말라 소린못 들었으니 좀 안심이야, 그곳에서 먹은 누나초코렛은 더욱 멋미였고, 앞사람 발자국을 고대로 디디다 빠지면,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재미 또한 만점이야.

물! 지금 난 세두방과흐뻐이 먹고 싶어. 따스한 방안의 소탑스럽 대화가 그립고, 깨끗한 화장실과 도회의 어지러운 거리조차같음이 난단다. 산을 내려가면 하고 싶은 일, 읽고싶은 책, 보고 싶은 얼굴. 듣고 싶은 음악이 머리속에 가득하지만, 막상 조국이 주어지면 모든 것은가슴 속의 한 생각에 불과하게 되겠지?

허영계 퓌밑인 산줄기가 지도책의 산맥지도 같은 발밑을 내려다보며 초코렛빛으로 내 얼굴을 물들어버린 태양 아래서 난 장엄하면서도 경허한 자연의 교훈을 듣고있어. 하지만 실천하려고 노력할뿐이고, 우리가 그것의 품안으로 들아가는 날 버로소 참 삶을 찾게되겠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 속의 나를 연결시키며 오늘도 또 내일도 인생의 험한 여정을 걸어갈가한다.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처어럼의 연설중에서 인용한, 우리 고1때 급훈 기억나지?

주머니 속에서 날 보호해 주시는 나의 신부 장 사드리면다. 좀 더 그 분과 가까워진 기분야.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하고 싶어.

다시 만나는 날 웃을 수 있는, 그리고 너를 웃게 할 수 있는 나를 약속하며, 시작도 끝도 없는 대화를 맘졸가 보다.

81년 1월25일 밤머니가 (F·Z)

주간 편성표

F·B·S외대 교육방송국

월	화	수	목	금
8:30	교가 게시 Anrouncement			
40				
9:00	아침의 산책			
12:00	News Campaign			
10	안녕하세요	FBS 세계만방	Aroundthe Wonld	어학생 휴게실	FBS 종합뉴우스 영상의 선율
20					
30	POP Parade	명작의 순례	Campus	고전 음악실	
40					
1:00		전경	FBS Punch		FBS 음전실
20	Reguest 연정집				
4:30	Newsnetwork Campaign				
40	가족의 풍상	하오의 Cassic	전통의 향기	미네르바 사색	Programlm Highlight
5:00					

원 고 모 집

본보에서는 학우생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단·시·수필·감상·비평등 다방면에 걸쳐 보다 참신하고 비중있는 원고를 모집합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가 지불되며 외대인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논 단·비평:30매
▲수 필·감상:5~10매
▲제출처:외대신문사(학생회관 311호)
▲기 간:제한 없음

외 대 학 보

신간 소개

「중남미 이민과 정치」

강 석 영 편역

본교 서반아어과에 재장하면서 중남미문제 연구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있는 강석영 교수가 그 동안의 성과를 보따리한 책을 펴냈다.

중남미 지역을 연구하면서 낱 권의 자료를 모아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는 편역자의 말대로, 무역 및 자원개발문제와 더불어 이민문제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이 부각되고있는 중남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제1편 중남미이민과 사회 제2편 중남미 역사와 정치로 구성된 이 책에는 Herbert Goldhamer 와 Gino Germani등 권위있는 중남미 연구가들의 학설이 잘 정리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송산출판사간 값3.000원>

「아메리카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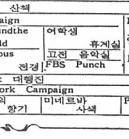
레이 S 클라인 저
최 규 장 역

본서는 세계 162개국을 평가대위에 올려 놓고 힘을 저울질하여, 80년대 미국의 국방·외교정책을 제시하려 하고있다. 그는 국력평가의 방법으로 단편적인 국력변수를 측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전략과 국민의지를 감성변수로 보는 입체적평가방법을 도입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형의 힘은 다른 유형의 힘과는 달리 국력을 배가시킬 수도 영락시킬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저자는 조지타운대학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으로때 이전 선거운동본부 외교정책자문위원장을 지냈고, 레이건 행정부의 「지에본부」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레이건정부의 세계전략을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사간 값 3.000원)

외대만평



여기 저기서!

本社創立 25周年 記念出版

10萬의 單語·親切한 해설·풍부한 例文
산뜻한 번역·萬人의 英英韓辭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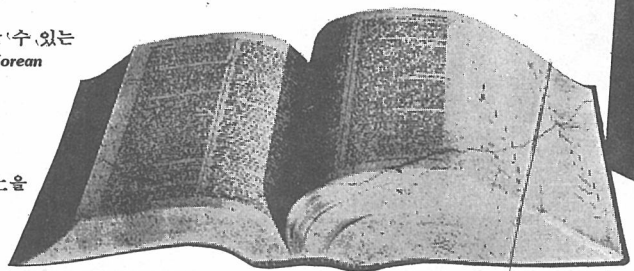
全國有名書店서 절찬리 發賣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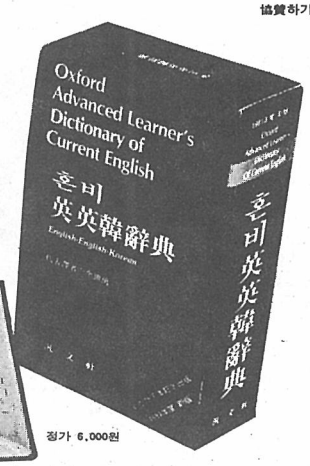
英語敎師를 위한 派英혼비奬學基金에 옥스포이드 本社와 汎文社가 協賛하기로 하였읍니다.

혼비英英韓辭典

代表譯者:金鎭萬

學生과 社會人을 위한
혼비辭典은
英語를 빠르게 마스터 할 수 있는
英-英-韓 English-English-Korean
辭典입니다!
옥스포어드와 汎文社의
共同努力으로 이루어진
이 빛나는 業績이
여러분의 눈부신 實力向上을
도울 것입니다!





정가 6,000원

辭典과 함께 보내드리는 혼비 씨리즈!
英語의 패턴과 語法을 공부하는

혼비英文法 ·A5判/350面 ·값 3,000원 (再版)
엑서싸이즈 171 ·A5判/220面 ·값 2,000원 혼비問題集
그림英韓辭典 ·B5判/110面 ·값 2,500원

圖書出版 汎文社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가40 전화 72/5131·5132·5133